

현역 프리미엄 뚫고 258표 차 승리

사순문 장흥군수

조국혁신당 사순문 장흥군수 당선자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김성 군수를 꺾고 승리하며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됐다.

장흥 출신인 사 당선자는 장흥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헐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사 당선자는 정보통신정책 책임연구원과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또한 통일부 장관 보좌관, 제11대 전남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김성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사 당선자는 50.57%(1만1천349표)를 득표해 49.42%(1만1천101표)를 얻은 김 후보를 불과 288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그는 2010년 무소속 후보로 장흥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다시 군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장흥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김성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조국혁신당 후보로 다시 도전에 나서 재수 끝에 현직



조국혁신당 사순문 장흥군수 당선자가 지난 3일 장흥군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당선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사순문 당선자 측 제공)

군수를 꺾고 군정의 새 수장이 됐다.

사순문 당선자는 “군민을 섬기는 군수가 돼 더 큰 장흥, 더 행복한 장흥을 만들겠다”며 “군민의 선택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과 함께 장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장흥=노형록 기자

112표 차로 現 단체장 꺾고 ‘신승’

이재각 진도군수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후보가 재도전 끝에 진도군수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총 50.28%(9천962표)를 획득해 49.71%(9천850표)를 얻은 무소속 김희수 후보에 불과 112표 (0.57%p) 차로 승리했다.

현직 군수와 맞붙은 이 당선자는 개표 초반부터 초점전 양상을 보이며 앞치락 뒤치락했지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육군 준장 출신으로 충북지방방무청장을 역임한 이 당선자는 2022년 민주당 진도군수 경선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후 외신상담하며 마을버스를 타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바닥 민심을 탄탄히 다져왔다.

특히 과거 군과 병무청에서의 행정·조직 운영 경험을 앞세워 ‘준비된 군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침체된 진도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종합 발전 전략 ‘J-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앞세워 표심을 파고들었다.

더불어 국립 김산업진흥원 유치, 팻산업 세계엑스포 개최 등 진도만의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2번째 진도군수 도전에서 당선 영광을 안은 이재각 당선자는 “이번 승리는 새로운 진도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가는 곳마다 따뜻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자가 지난 3일 당선 확정 후 배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재각 당선자 측 제공)

손잡아 주고 격려해 주신 군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당선자는 “앞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깨끗하고 공정한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며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성공시켜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약속했다. /주성학·진도=박세권 기자

3선 성공 “중단없는 무안 발전” 약속

김산 무안군수

더불어민주당 김산 무안군수 후보가 무소속 정영덕 후보를 물리치고 3선 연임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김산 당선자는 55.88%(2만7천383표) 득표율을 기록해 44.11%(2만1천618표)를 얻은 정영덕 후보를 5천765표차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무안군수 선거는 김 당선자의 3선 독주를 막기 위해 야권 후보들의 강한 견제와 공세 속에서 치러졌다.

김 당선자는 개표 초반 무소속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지만 군민들은 ‘현실적인 변화’보다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발전’을 택했다.

김 당선자는 민선 7·8기 재임 기간 동안 쌓아온 탄탄한 군정 성과와 견고한 지역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거전 초반부터 유지해 온 우세를 끝까지 지켜내며 리더십을 재입증했다.

김산 당선자는 “다시 한번 무안의 미래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위대한 무안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닌, 중단 없는 무안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 모두의 승리이자 무안의 자존심을 지켜낸 쾌거”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당선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사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남·아·오휘 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등 신장한 핵심 현안들을 철저히 군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해



더불어민주당 김산 무안군수 당선자가 지난 3일 당선 확정 후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김산 당선자 측 제공)

결해 나가겠다”며 “낙후된 지역 경제를 다잡고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두가 풍요롭게 살기 좋은 명품 무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제5·6대 무안군의원과 군의회 의장을 거쳐 민선 7·8기 무안군수를 역임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영광 미래 열겠다”

장세일 영광군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광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장 당선자는 총 51.4%(1만6천594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진보당 이석하 후보(26.8%)와 무소속 김한규 후보(18.19%)를 따돌리고 승리했다.

장 당선자는 “당선의 기쁨보다 먼저 영광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번 선택은 장세일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군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더 큰 도약으로 이어가려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는 끝났고, 저를 지지해주신 분도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모두 제가 섬겨야 할 소중한 영광군민이다”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더 큰 영광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당선자는 최우선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을 꼽았다. 장 당선자는 “영광이 가진 풍부한 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영광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방향으로 ▲지역 경제 회복 등 민생이 살아나는 영광 ▲햇빛·바람이 군민의 소득이 되는 기본소득 실현 ▲RE100산업단지 중심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청정수소 특화단지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등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자가 지난 3일 당선 확정 후 지지자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고 있다. (장세일 당선자 측 제공)

의 비전을 제시했다. 장세일 당선자는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더 겸손하게 일하고 영광의 미래 100년 기틀을 다지는 군수가 되겠다”며 “군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멈추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소속 노관규 꺾고 텃밭 탈환 성공

손훈모 순천시장

6·3지방선거 순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후보가 ‘징검다리 4선’ 도전에 나선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꺾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당초 현직 프리미엄과 높은 시장 평가를 앞세운 노관규 후보가 우세를 점했었으나 손훈모 당선자는 민주당 중앙당의 총공세에 힘입어 ‘힘 있는 여당 지원’을 약속하며 이변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손 당선자는 전체 유효표 15만1천263표 가운데 7만1천290표 (46.85%)를 획득해 무소속 노 후보(6만2천40표·40.77%)에 60.8%p (9천250표) 차로 승리했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노관규 후보에 내렸던 시장직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됐다.

1989년생인 손 당선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손 당선자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급몰 수수의 의혹으로 중앙당 조사 등 잡음이 적지 않았으나 순천시장 탈환을 위해 절치부심한 민주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결집이 성공하며 승리를 이끌어냈다.

손 당선자의 5대 공약은 ▲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 청·장년 일자리 확보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과 민생경제 회복 ▲순천관광공사 설립 수익 순환형 지방재정 구축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인프라 구축 ▲인사시스템·조직문화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자가 지난 3일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세례모니를 하고 있다. (손훈모 당선자 측 제공)

개혁 시민중심 행정혁신이다.

손훈모 당선자는 “이번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닌 우리 순천을 명롭게 했던 분열과 갈등의 구태정치를 끝내고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위대한 순천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생태도시를 넘어 경제도시로 순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순천=곽동현 기자

“쫄군민 30만원 기본소득 실현”

장길선 구례군수

더불어민주당 장길선 구례군수 당선자는 교육행정과 지방의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장 당선자는 순천여중 교장,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구례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하는 등 30년 이상 교육 현장에서 활동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례군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군의회 의장직을 맡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오랜 교육행정 경험과 지방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온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구례군정을 이끌게 됐다.

장 당선자는 당선 직후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장 당선자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며 함께 응원해 주신 모든 구례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고 군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장 당선자는 “그동안 분열됐던 구례를 하나로 화합하고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다”며 “군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 이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길선 구례군수 당선자가 지난 3일 선거사무소에서 승리가 확정된 후 배우자와 함께 만세를 외치고 있다. (장길선 당선자 측 제공)

장 당선자는 ‘전 군민 매일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언급하며 “군민들이 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례=김세중 기자